

“회원 위상 높이고 디자인산업 생태계 구축 최선 다할 것”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 조고미 이사장 취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 관련 조직을 이끌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애니메이션 분야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회원들과 힘을 모아 관·학·산·연과 함께하는 ‘디자인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사)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 20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 조고미(사진) 교수는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7년 전남산업디자인협회로 출발한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디자인 관련 조직으로 다양한 장르의 학계, 문화계, 업계 관계자 등 회원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시각·영상, 제품·환경, 공예 디자인, 패션·뷰티, 애니메이션, 기업 등

모두 6개 분과를 운영중이며 경기, 부산, 전북 지회도 결성돼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다양성과 융합의 시대를 맞아 디자인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과 연구소, 학교와 현장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조 이사장은 특히 디자인연합회가 한국산업기술기술평가원의 ‘R&D 혁신밸리육성’에 선정돼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능



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전시와 공모전 등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 연합회 회원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신임 조 이사장은 목포대를 거쳐 중앙대 예술학석사, 조선대 문학박사(미학미술사)를 받았으며 일본 다마 미술대학 연수생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메이크업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패션뷰티 스타일링’ 등의 책자를 펴냈다.

한편 사)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는 20대 집행부 부회장으로 박성현·유장웅·이승찬·이재용 회원을, 감사로 김경미 회원을 선임했으며 사무총장 하선옥, 사무국장 김하나, 재무이사 나미정 회원으로 사무국을 꾸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시스터즈 출신 ‘서울 탕고’ 가수 방실이 별세

서울시스터즈 출신으로 ‘서울 탕고’ ‘첫차’ 등의 히트곡을 남긴 가수 방실이(본명 방영순·사진)가 20일 오전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61세.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방실이는 이날 2007년 이래 17년간 투병 중이던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1963년생으로 인천 강화도 출신인 고인은 지난 1980년대 미8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해 1985년 박진숙·양정희와 여성 3인조 서울시스터즈를 결성했다.

그는 시원한 가창력을 앞세워 ‘첫차’, ‘벚고동’, ‘청춘열차’ 등을 히트시켰다. 방실이는



는서울시스터즈해체 후 1990년 솔로로 전향해 ‘서울 탕고’, ‘여자의 마음’ 등을 발표해 인기를 누렸다. 방실이는 지난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17년간 투병 생활을 해 왔다. 그는 지난해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된 데 이어 당뇨에 따른 망막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상황을 공개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최민규 원광대 의대 명예교수 헌혈 졸업식

만 69세...200회 이상 참여

최민규(69·왼쪽)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해부학 교실)가 최근 ‘특별한 정년’을 맞아 눈길을 끈다. <사진>

최 교수는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의집 총장로서에서 ‘생애 마지막 헌혈’에 참여, 헌혈 정년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혈액관리법은 헌혈 가능 연령을 만16~69세로 제한하고 있다.

최 명예교수의 첫 헌혈은 그가 군인이었던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한동안 헌혈을 잊고 살았으나 2009년 혈액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헌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학부생들과 함께 헌혈에 동참했다. 그는 이후 15년간 200회 넘게 헌혈에 참여했다.

주변 지인들에게 최 명예교수는 ‘헌혈 전도사’로 통한다. 그는 “헌혈에 한 번 참여하면 이후에는 스스로 하게 된다”며 “어렸을 때부터 헌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헌혈



에 적극 참여하는 등 헌혈문화 확산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명예대장(헌혈 200회),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등을 받았다.

최 명예교수는 “주변에 이미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헌혈 참여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50대에 본격적으로 헌혈을 시작한 나의 이야기가 헌혈 참여를 망설이는 많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원 이재석 교수

‘나의 교육과 연구...’ 출간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 이재석(사진) 신소재공학부 명예교수가 20일 저서 ‘나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를 출간했다.

지스트의 설립을 주도한 이 교수는 1994년 임용돼 부교수, 교수, 특훈교수, 초빙석학을 거쳐 현재 명예교수이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다.

이 교수는 고분자 합성 중 음이온 중합에 의해 이소시아네이트의 리빙성을 최초로 발견했으며 고분자 합성, 이소시아네이트의 리빙 음이온 중합 등에 대해 국제학술지에 26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이 책은 교수라는 직업으로 살면서 맺었던 생각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삶에 대한 회고록”이라며 “어떤 자세로 교육, 연구, 봉사에 임했는지 간접 경험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00엔숍’ 다이소 창업자 야노 히로타케 별세

‘100엔숍 다이소’ 창업자 야노 히로타케 전(사진) 다이소 산업 회장이 12일 일본 히가시히로시마시에서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일본 매체가 19일 다이소산업의 발표를 인용해서 전했다. 향년 만 80세.

1943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친이 의사였지만 가난하게 자랐다. 결혼을 계기로 처가의 방어양육을 물려받았다가 3년 만에 부모가 나 700만엔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다.

도쿄에서도 9년 직장을 옮겨 다닌 끝에 1972년 생활용품을 트럭에 싣고 다니며 파는 ‘야노상점’을 차렸다.

이후 1977년 다이소산업을 창업했으며 일



본 경제의 거품이 꺼진 뒤 장기불황 국면에 접어들어 1990년대 후반에 급속도로 사세를 확장했다.

2019년 현재 일본에 약 3300개 점포, 해외 26개국에 약 2000개 점포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웠다.

한국 다이소는 2001년 상호에 ‘다이소’를 붙이고 지분 투자를 받았다가 최근 아성 HMP가 2대 주주인 다이소산업의 지분을 전량 사들이며 관계를 정리했다. /연합뉴스

동강대 정수아 씨, 해외 임상병리사 학회서 발표



동강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정수아(사진) 졸업생이 오는 4월 18일부터 대만 가오슝에서 열리는 ‘제15회 임상병리사 아시아 태평양 포럼’에 학생 대표연자로 초청받았다. 정 씨는 이번 포럼에서 ‘임상병리사로서 환자 건강관리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씨는 지난해 열린 ‘제61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베스트 구연상’을 수상, 초청 자격을 얻었다. 정 씨는 현재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의원>	5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의원>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의원>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기본 좋은 날	40 살맛나는 오늘
[11]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10 이웃집 찰스(재)	00 환상연가(재)	15 뽀뽀보 좋아좋아 스페셜 45 주니토니 이야기	10 애니갤러리 40 안녕 자두야 55 헬로키티 X
[12]	00 KBS 뉴스 12	15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00 12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휴먼다큐 마냥 이쁜 우리맘
[1]	0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5 푸르기 식사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휠체어컬링 혼성4인조 결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코드네임(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재)	55 5 MBC 뉴스	00 시장의 품격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연설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부 16강전>	10 트로트 클래스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5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특별기획 4부작 7년 전쟁과 전라도사람들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월드 24 55 살리는 남자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대학체전:소년선수촌 스페셜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15 스모킹 건	30 라디오스타	40 브로 앤 마블
[11]	3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50 보물지도(재)
[12]	00 시사기획 창(재) 50 사랑의 가족(재)	15 고래 거란 전쟁(재)	15 원더풀 월드 프리미어 3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소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웃기는 처음 영어(재)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다이노스터(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7:00 허풍선이 미술소	12:10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19:00 한국의 돌레길
07:15 시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17:30 얼마 까투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귀하신 몸(재)
07:45 레인보우 버블랩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세태극부 인생길 기행-인생 맛, 손맛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5 한국기행
08:5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태극군악 물렀거라 3부 달려라 썰매견>
09:05 최고! 호기심딱지(재)	16:40 당동맹 유치원(재)	21:55 왔다! 내 손주
09:20 탑골스타 개칭이(재)	17:00 페퍼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드 다이어리
10:00 안전채널e	17:10 마사와 곰	23:35 툄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1일(음 1월 12일 乙卯)

<p>36년생 결과가 엄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익하다. 48년생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커다란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60년생 향후의 탈상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72년생 순차적인 계획의 실현이 대어를 낚게 해 줄 것이다. 84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 할 만하다. 96년생 참된 가치와 함께 하자. 행운의 숫자 : 44, 67</p>	<p>42년생 한 곳에 몰입하다 보면 주변 상황에 소홀해지기 쉽다. 54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코다칠 수 있느니라. 66년생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포기하라. 78년생 때와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90년생 정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꼭 이루어라. 02년생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7, 63</p>
<p>37년생 대원이 이루어지려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라. 49년생 추구에 왔던 가치나 지평하고 있는 기운이 점점 소멸하여 가는 판국을 밀 것이다. 61년생 다목적의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하자. 73년생 다채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어렵다. 85년생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97년생 기쁨에 신경 쓴다면 금상첨화이다. 행운의 숫자 : 34, 55</p>	<p>43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55년생 정확히 일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랄 것이다. 67년생 발전적이고 희망찬 영역의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79년생 투명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91년생 열심하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03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흔들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7, 62</p>
<p>38년생 갑자기 허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겠다. 50년생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다. 62년생 본인이 예상했던 바에 틀림없이 적중할 것이다. 74년생 기본 소식이 메아리칠 것이나. 86년생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리라. 98년생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90, 83</p>	<p>44년생 작정하여 왔던 바대로 모색하면 틀림없이 유리한 판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56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슬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8년생 일의 순서보다 양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 80년생 막연히 추측하면 곤란하다. 92년생 예상보다는 나은 결과이다. 04년생 무리한다면 다음 날에 지장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9, 81</p>
<p>39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51년생 궁극적으로 정리되거나 통합될 수도 있는 마당이다. 63년생 앞면에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75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날 것이니 틀림없다. 87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99년생 얼마나 근사치에 접근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4, 72</p>	<p>45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볼 일이다. 57년생 집중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었을 때만 가능하리라. 69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81년생 효과를 보지 못 하리라. 93년생 기존의 면모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실효적이나. 05년생 비로소 실패성을 획득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7, 73</p>
<p>40년생 이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라. 52년생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이 클 것이로다. 64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나. 76년생 풍성한 소득을 가져오는 성공의 마당이다. 88년생 소소한 것은 차치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하라. 00년생 지나치다 보면 역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20, 97</p>	<p>46년생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8년생 면밀히 살펴본다면 여러 곳에서 손질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띌 것이다. 70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속이 있어야 하겠다. 82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94년생 한 번 받은 맑은 주위 답을 수 없는 법이니 삼사일언 하자. 06년생 여러 가지가 겹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0, 95</p>
<p>41년생 눈에 띄더라도 못 본 체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53년생 주관적 심리를 배제하고 실상에 충실함이 옳다. 65년생 눈에 띄는 하자가 있으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77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으니 속히 조치하여야만 한다. 89년생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경사가 보인다. 01년생 불가능하다면 미련을 버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2, 96</p>	<p>35년생 험담기는 하지만 거들어 주는 이도 있다. 47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 59년생 입장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반목이 보인다. 71년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중용의 도를 잃지 말자. 83년생 순간의 방심은 커다란 손해를 부른다. 95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11, 69</p>